

2013 6.16 연중 제 11 주일

제 1 독서 : 사무엘 하권 12,7 ㄱ-10,13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임금님께서돌아가시지는 않을것입니다 .>

제 2 독서 : 갈라티아서 2,16.19-21 <이제는 내가 사는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복 음 : 루카 7,36-8,3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 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제 1 독서와 복음을 나중에 보기로 하고, 오늘은제 2 독서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제 2 독서를 다시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제 2 독서는 사도 바오로가 갈라티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입니다. “**형제여러분,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예수그리스도에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있는 헌법이나 형법,상법 들은 모두 육체적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즉 영혼으로 죄를 짓는 죄는 형법이 다스리지 않습니다. 설사 마음으로 내가 누구를 죽인다고 하여도 형법으로는 저촉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안에서는 다릅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은 우리의 영혼의 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영혼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사람은 육체적인 법으로 다스려지는 사람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외형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에 우리의 마음을 둔다면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게됩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바로 하느님나라에 대한 희망을 줍니다. 그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합니까? 그분의 계명 즉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을 살아가야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분께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얻을수 있겠습니까? 그 은총은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귀기울여 들을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말씀은 보는것이아니라 청력의 귀를 기울여 들을때에 우리마음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독서, 복음이 읽혀질때는 책에서 손을 떼시고 조용히 귀기울여 듣는 자세가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믿음을 들어서 만나게 되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그 희망은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게하여 주는 것입니다. **“나는 하느님을 위하여 살려고, 율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율법으로 죽었습니다.”** 바리사이들은 육을 위해 살았지만 사도 바오로께서는 영을 위하여 율법으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안에 누가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육신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제 1 독서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다윗왕은 나중에는 인간이 갖고 싶은 모든것을 차지하였습니다. 많은 재물과 많은 여자를 가지게 되었지만 그래서 행복을 안겨다 줄것 같았지만 그것은 속임수일 따름이었습니다. 그 속임수는 결국 다윗왕으로 하여금 많은 여자를 가졌음에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충신의 아내를 훔치고 더욱 나아가 그 충신을 전쟁터에서 위험에 처하게 하여 죽게 만듭니다. 아마 마피아도 그런짓은 저지르지를 않을 것입니다. 요즘 영화를 보면 눈을 찌푸리게 하는 끔찍하고 처참한 장면들이 거리낌없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간이 그렇게까지 악질인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병들고 정에 굶주린 사람들이 있을 따름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좋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인간들의 욕심에 의해서, 잘못 살아가는 방법에 의해서 병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한 짓은 병이 저지르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죄수와 감옥이 많은곳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라고 합니다. 감옥을 짓고 또짓고 하여도 죄수가 넘쳐흘러서 죄수들을 내 보내야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감옥을 짓는데 들어가는그 많은 돈을 교육에 투자한다면 그렇게 감옥을 늘리지 않아도 될것 입니다. 우리 사회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윤리 도덕은, 에치켓은, 더이상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안에서 영적인 삶의 가치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죄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결국은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됩니다. 이 사회는 점점 윤리적인 죄를 부정해 나갑니다. 내가 짓고 있는 죄들을 내 스스로가 점점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들도 다 하고 있는 것인데,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느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야, 모든 주도권은 오로지 나에게 있어.” 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제 1 독서에서 다윗은 예언자 나단의 말을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하느님께 속죄를 합니다. 그러기에 하느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다시 사시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나오는 여인의 죄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속죄하는 그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인정 하지 않는 것은 하느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작아져야 그 분이 커지십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 자존심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느님이 우리 안에서 커지십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이 나를 주도하고 있으면 하느님이 거처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매일 불평과 불만속에서 살게 됩니다. 언제나 불만이고 가진 것에 대하여 고마워 할 줄을 모릅니다. 받아도 고마워 할 줄을 모릅니다. 제 자신도 한때 그렇게 생각하며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느님께 받은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행복하지 못한 것은 나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인지 헤아려보십시오.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행복해 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심리학자이신 신부님의 말씀중에 “**빈 젖을 빨지 말라.**” 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엄마 젖이 말라버렸는데도 그것을 빨면서 계속 울어만대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나는 어떤 빈 젖을 빨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한번 내가 가진 것을 한번 돌아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깨달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행복을 누리십시오. 오늘 행복을 찾지 못하면 내일도 행복을 찾지 못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미사중에 하느님이, 성령님이 내안을 채우시고 나의 영혼을 채워 주시도록 기도 하십시오. 과연 나는, 나의 죄를 알고 있는지? 내 죄를 알고 그래서 그만큼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좋은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느님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하느님의 오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임금님께서 돌아가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무엘기 하권의 말씀입니다. 12,7 ㄱㄷ-10.13

그 무렵 7 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해 주었다. 8 나는 너에게 네 주군의 집안을, 또 네 품에 주군의 아내들을 안겨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안을 주었다. 그래도 적다면 이것저것 너에게 더 보태 주었을 것이다.

9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이 보기에 악한 짓을 저질렀느냐? 너는 히타이트 사람 우리야를 칼로 쳐 죽이고 그의 아내를 네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자손들의 칼로 죽였다. 10 그러므로 이제 네 집안에서는 칼부림이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를 무시하고, 히타이트 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데려다가 네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

13 그때 다윗이 나탄에게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하고 고백하였다. 그러자 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임금님께서 돌아가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말씀입니다. 2,16.19-21

형제 여러분, 16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인간도 율법에 따른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9 나는 하느님을 위하여 살려고, 율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20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21 나는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하여 의로움이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7,36—8,3<또는 7,36-50>

그때에 36 바리사이 가운데 어떤 자가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예수님을 초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서는 그 바리사이의 집에 들어가시어 식탁에 앉으셨다. 37 그 고을에 죄인인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서 바리사이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왔다. 그 여자는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서 38 예수님 뒤쪽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더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랐다. 39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사이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곧 죄인인 줄 알 터인데.’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40 그때에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스승님, 말씀하십시오.” 하였다.

41 “어떤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둘 있었다. 한 사람은 오백 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사람은 오십 데나리온을 빚졌다. 42 둘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43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서 “옳게 판단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44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셨다.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 주었다. 45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46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발라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어 발라 주었다. 47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48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49 그러자 식탁에 함께 앉아 있던 이들이 속으로,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 용서해 주는가?’ 하고 말하였다.

50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8,1 그 뒤에 예수님께서서는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열두 제자도 그분과 함께 다녔다. 2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일곱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 3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안나, 수산나였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